

2026
06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벽예배 설교 한 흥 목사

매주 화-금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매주 토 | 새로운홀(가든파이브 패션관 10층)



다음 세대 사무엘들을 준비하는 교회



사무엘은 340년이나 되는 어둠의 사사 시대를 끝내고, 다윗왕을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왕조 시대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지기까지는 어머니 한나의 믿음의 양육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는 뜻을 가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뺀 때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서원대로 평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는 세 살 때까지 젖을 먹였기 때문에, 적어도 태어난


뒤부터 세 살 될 때까지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깊은 사랑과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애 두 번의 큰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0~3세이고, 두 번째는 10대 초중반입니다. 0~3세의 뇌가 잘 발달해야 힘겨운 사춘기의 뇌를 지탱하고, 10대의 2차 발달기를 잘 지나야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0~3세 기간의 뇌 발달 속도가 전 생애에서 가장 빠릅니다. 이때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애착(attachment), 사회성, 자기 조절을 배웁니다. 이 시기에 부모가 일관되게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애정과 지지를 표현해 줌으로써, 아이가 평생 가질 인간관계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부모는 아이가 세상에서 맺는 첫 번째 인간관계입니다.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다'는 감각을 배웁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이 세 살 될 때까지 흠뻑 사랑을 주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키웠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EQ(감성지수)'라는 단어를 전세계적으로 유행시킨 하버드대 심리학자 대니얼 골먼은 EQ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0~8세 유아기-아동기 초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인성은 생각해서 배우기 전에, 관계 속에서 먼저 형성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이고, 주변의 좋은 어른들,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세 살 된 사무엘을 성전에 맡겨서 주의 종이 될 준비를 하도록 했지만, 그 뒤에도 한나는 매년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 당시는 옷을 만들려면 직접 옷감부터 짜야 했습니다. 매년 사이즈가 점점 커져가는 옷을 만들면서, 한나는 아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사무엘이 매년 성장함에 따라 그 기도의 이야기가 계속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이 멈추지 않는 기도가 사무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시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교육은 부모들로 하여금 자꾸 어릴 때부터 제3자에게 아이를 "맡기게" 합니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깁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힘든 현실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아이에게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줘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어떻게든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젠 세상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자녀 신앙 교육의 핵심 주체는 부모임을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교회는 부모의 책임을 대신해 주는 곳이 아니라, 부모 옆에서 함께 보조를 맞추며 도와 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모가 성경적 부모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부모를 제자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은혜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에게 흘려보내 주셔야 합니다. 새로운교회 뉴젠 주일학교는 부모를 대신해서 자녀 신앙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고 부모를 도와 부모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 시대의 사무엘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SAEROUN QT

March Toward the Promised Land

[마가복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금 6:20 AM | 새로운교회(컨벤션홀)

매주 토 | 새로운홀(가든파이브 패션관 10층)



2026.
06

SAEROUN

QT

주일	월	화	수
31	1	2	3 2026지방선거
7	8	9	10
		화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14	15	16	17
21	22	23	24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			청년연합제주선교 24(수)~27(토)
몽골단기선교 21(주일)~26(금)			
28	29	30	1
26(금)~28(주일)			

목	금	토
4	5	6 현충일
11	12	13
	금요 커피브레이크 개강	
18	19	20
	금요찬양집회	
25	26	27
	NewGen Junior 여름성경학교 26(금)~28(주일)	
2	3	4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 JUL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2026.
06

1	월	여호와와 살아 계신다	시 115:1-9
2	화	영광 중에 드러난 예수님	막 9:2-8
3	수	[선거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딤후 2:1-8
4	목	감추어진 영광	막 9:9-13
5	금	오직 기도	막 9:14-29
6	토	[현충일]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시 46:8-11
7	주일	언약궤가 돌아오다	삼상 6:1-21 & 7:1-2
8	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 24:1-10
9	화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막 9:30-37
10	수	실족하지 않게 하라	막 9:38-50
11	목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	막 10:1-12
12	금	하나님 나라를 받는 마음	막 10:13-16
13	토	한 가지 부족한 것	막 10:17-22
14	주일	에벤에셀의 하나님	삼상 7:3-14
15	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	시 124:1-8
16	화	부요함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막 10:23-31
17	수	영광보다 십자가	막 10:32-40
18	목	섬김의 길	막 10:41-45
19	금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 10:46-52
20	토	겸손의 왕	막 11:1-11
21	주일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삼상 8:1-22
22	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신 17:14-20
23	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막 11:12-25
24	수	권위 논쟁	막 11:27-33
25	목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막 12:1-12
26	금	하나님께 바치라	막 12:13-17
27	토	산 자의 하나님	막 12:18-27
28	주일	사무엘의 유언	삼상 12:1-25
29	월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4-24
30	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막 12:28-37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찬양과 기도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중보기도의 순서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 1) 담임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기도합니다.
-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공훈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순예배시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들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01

월요일

여호와와 살아 계신다

시 115:1-9

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Not to us, LORD, not to us but to your name be the glory, because of your love and faithfulness.

2 어찌하여 못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Why do the nations say, "Where is their God?"

3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Our God is in heaven; he does whatever pleases him.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But their idols are silver and gold, made by human hands.

5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They have mouths, but cannot speak, eyes, but cannot see.

6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They have ears, but cannot hear, noses, but cannot smell.

7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They have hands, but cannot feel, feet, but cannot walk, nor can they utter a sound with their throats.

8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Those who make them will be like them, and so will all who trust in them.

9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 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All you Israelites, trust in the LORD— he is their help and shiel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02

화요일

영광 중에 드러난 예수님

막 9:2-8

2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After six days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where they were all alone. There he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3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His clothes became dazzling white, whiter than anyone in the world could bleach them.

4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And there appeared before them Elijah and Moses, who were talking with Jesus.

5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Peter said to Jesus, "Rabbi,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Let us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6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He did not know what to say, they were so frightened.)

7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Then a cloud appeared and covered them, and a voice came from the cloud: "This is my Son, whom I love. Listen to him!"

8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던라

Suddenly, when they looked around, they no longer saw anyone with them except Jesu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

딤후전 2:1-8

1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I urge, then, first of all, that petitions, prayers, intercession and thanksgiving be made for all people—

2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for kings and all those in authority, that we may live peaceful and quiet lives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3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This is good, and pleases God our Savior,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who want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kind, the man Christ Jesus,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people. This has now been witnessed to at the proper time.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And for this purpose I was appointed a herald and an apostle—I am telling the truth, I am not lying—and a true and faithful teacher of the Gentiles.

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Therefore I want the men everywhere to pray,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anger or disputing.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감추어진 영광

막 9:9-13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gave them orders not to tell anyone what they had seen until the Son of Man had risen from the dead.

10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They kept the matter to themselves, discussing what "rising from the dead" meant.

11 이에 예수께 문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And they asked him, "Why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2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does come first, and restores all things. Why then is it written that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ch and be rejected?"

13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But I tell you, Elijah has come, and they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just as it is written about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언약궤가 돌아오다

삼상 6:1-21 & 7:1-2

[삼상 6:1-21]

1 여호와와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던 지 일곱 달이라

When the ark of the LORD had been in Philistine territory seven months,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the Philistines called for the priests and the diviners and said,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LORD? Tell us how we should send it back to its place."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They answered, "If you return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do not send it back to him without a gift; by all means send a guilt offering to him. Then you will be healed, and you will know why his hand has not been lifted from you."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The Philistines asked, "What guilt offering should we send to him?" They replied, "Five gold tumors and five gold ra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Philistine rulers, because the same plague has struck both you and your rulers."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Make models of the tumors and of the rats that are destroying the country, and give glory to Israel's god. Perhaps he will lift his hand from you and your gods and your land.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Why do you harden your hearts as the Egyptians and Pharaoh did? When Israel's god dealt harshly with them, did they not send the Israelites out so they could go on their way?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멩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젓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Now then, get a new cart ready, with two cows that have calved and have never been yoked. Hitch the cows to the cart, but take their calves away and pen them up."

8 여호와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Take the ark of the LORD and put it on the cart, and in a chest beside it put the gold objects you are sending back to him as a guilt offering. Send it on its way,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뽕세 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but keep watching it. If it goes up to its own territory, toward Beth Shemesh, then the LORD has brought this great disaster on us. But if it does not, then we will know that it was not his hand that struck us but that it happened to us by chance."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젓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So they did this. They took two such cows and hitched them to the cart and penned up their calves.

11 여호와와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They placed the ark of the LORD on the cart and along with it the chest containing the gold rats and the models of the tumors.

12 암소가 뽕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뽕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Then the cows went straight up toward Beth Shemesh, keeping on the road and lowing all the way; they did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followed them as far as the border of Beth Shemesh.

13 뽕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Now the people of Beth Shemesh were harvesting their wheat in the valley, and when they looked up and saw the ark, they rejoiced at the sight.

14 수레가 뽕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파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The cart came to the field of Joshua of Beth Shemesh, and there it stopped beside a large rock. The people chopped up the wood of the cart and sacrificed the cows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15 레위인은 여호와와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뽕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The Levites took down the ark of the LORD, together with the chest containing the gold objects, and placed them on the large rock. On that day the people of Beth Shemesh offered burnt offerings and made sacrifices to the LORD.

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saw all this and then returned that same day to Ekron.

17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These are the gold tumors the Philistines sent as a guilt offering to the LORD—one each for Ashdod, Gaza, Ashkelon, Gath and Ekron.

18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
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와 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
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뱀세메스 사람 여호수
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And the number of the gold rats wa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hilistine towns belonging to the five rulers—the fortified
towns with their country villages. The large rock on which the
Levites set the ark of the LORD is a witness to this day in the field
of Joshua of Beth Shemesh.

19 뱀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
라

But God struck down some of the inhabitants of Beth Shemesh,
putting seventy of them to death because they looked into the
ark of the LORD. The people mourned because of the heavy blow
the LORD had dealt them.

20 뱀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
라가시게 할까 하고

And the people of Beth Shemesh asked, "Who can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is holy God? To whom will the ark go up
from here?"

21 전령들을 기랏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와 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
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Then they sent messengers to the people of Kiriath Jearim,
saying, "The Philistines have returned the ark of the LORD. Come
down and take it up to your town."

[삼상 7:1-2]

1 기랏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와 의 궤를 지
키게 하였더니

So the men of Kiriath Jearim came and took up the ark of
the LORD. They brought it to Abinadab's house on the hill
and consecrated Eleazar his son to guard the ark of the
LORD.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
모하니라

The ark remained at Kiriath Jearim a long time—twenty
years in all. Then all the people of Israel turned back to the
LORD.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시 24:1-10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
들은 다 여호와와 것이로다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for he founded it 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on the waters.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Who may ascend the mountain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The on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trust in an idol or swear by a false god.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니

They will receive blessing from the LORD and vindication from
God their Savior.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Such is the generation of those who seek him, who seek
your face, God of Jacob.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
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Lift up your heads, you gates; be lifted up, you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Who is this King of glory? The LORD strong and mighty,
the LORD mighty in battle.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
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Lift up your heads, you gates; lift them up, you ancient
doors, that the King of glory may come in.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
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Who is he, this King of glory? The LORD Almighty— he is
the King of glory.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실족하지 않게 하라

막 9:38-50

38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42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 (없음)

45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6 (없음)

47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50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하나님 나라를 받는 마음

막 10:13-16

13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People were bringing little children to Jesus for him to place his hands on them, but the disciples rebuked them.

14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When Jesus saw this, he was indignant. He said to them,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and do not hinder them, for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such as these.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Truly I tell you,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16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And he took the children in his arms, placed his hands on them and blessed the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한 가지 부족한 것

막 10:17-22

17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As Jesus started on his way, a man ran up to him and fell on his knees before him. "Good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Why do you call me good?" Jesus answered. "No one is good—except God alone.

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You know the commandments: 'You shall not murder,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you shall not steal, you shall not give false testimony, you shall not defraud,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20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Teacher," he declared, "all these I have kept since I was a boy."

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Jesus looked at him and loved him. "One thing you lack," he said. "Go, sell everything you have and give to the poor, and you will have treasure in heaven. Then come, follow me."

22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At this the man's face fell. He went away sad, because he had great wealth.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에벤에셀의 하나님

삼상 7:3-14

- 3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So Samuel said to all the Israelites, "If you are returning 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then rid yourselves of the foreign gods and the Ashtoreths and commit yourselves 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and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the Philistines."

- 4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So the Israelites put away their Baals and Ashtoreths, and served the LORD only.

- 5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Then Samuel said, "Assemble all Israel at Mizpah, and I will intercede with the LORD for you."

- 6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When they had assembled at Mizpah, they drew water and poured it out before the LORD. On that day they fasted and there they confessed, "We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Now Samuel was serving as leader of Israel at Mizpah.

- 7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When the Philistines heard that Israel had assembled at Mizpah,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came up to attack them. When the Israelites heard of it, they were afraid because of the Philistines.

- 8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They said to Samuel, "Do not stop crying out to the LORD our God for us, that he may rescue us from the hand of the Philistines."

- 9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Then Samuel took a suckling lamb and sacrificed it as a whole burnt offering to the LORD. He cried out to the LORD on Israel's behalf, and the LORD answered him.

- 10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While Samuel was sacrificing the burnt offering, the Philistines drew near to engage Israel in battle. But that day the LORD thundered with loud thunder against the Philistines and threw them into such a panic that they were routed before the Israelites.

- 11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뿔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The men of Israel rushed out of Mizpah and pursued the Philistines, slaughtering them along the way to a point below Beth Kar.

- 12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up between Mizpah and Shen. He named it Ebenezer, saying, "Thus far the LORD has helped us."

- 13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So the Philistines were subdued and they stopped invading Israel's territory. Throughout Samuel's lifetime, the hand of the LORD was against the Philistines.

- 14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The towns from Ekron to Gath that the Philistines had captured from Israel were restored to Israel, and Israel delivered the neighboring territory from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re was peace between Israel and the Amorites.

영광보다 십자가

막 10:32-40

32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They were on their way up to Jerusalem, with Jesus leading the way, and the disciples were astonished, while those who followed were afraid. Again he took the Twelve aside and told them what was going to happen to him.

33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We are going up to Jerusalem," he said, "and the Son of Man will be delivered over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They will condemn him to death and will hand him over to the Gentiles,

34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who will mock him and spit on him, flog him and kill him. Three days later he will rise."

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Then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ame to him. "Teacher," they said, "we want you to do for us whatever we ask."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he asked.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They replied, "Let one of us sit at your right and the other at your left in your glory."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You don't know what you are asking," Jesus said. "Can you drink the cup I drink or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We can," they answered. Jesus said to them, "You will drink the cup I drink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 am baptized with,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but to sit at my right or left is not for me to grant. These places belong to those for whom they have been prepare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 10:46-52

46 그들이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매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가

Then they came to Jericho. As Jesus and his disciples, together with a large crowd, were leaving the city, a blind man, Bartimaeus (which means "son of Timaeus"), was sitting by the roadside begging.

47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When he heard that it was Jesus of Nazareth, he began to shout,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8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Many rebuked him and told him to be quiet, but he shouted all the more,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9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Jesus stopped and said, "Call him." So they called to the blind man, "Cheer up! On your feet! He's calling you."

50 맹인이 겹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 오거늘

Throwing his cloak aside, he jumped to his feet and came to Jesus.

51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Jesus asked him. The blind man said, "Rabbi, I want to see."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Go," said Jesus, "your faith has healed you."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Jesus along the road.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겸손의 왕

막 11:1-11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2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just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3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doing this?" say,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4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They went and found a colt outside in the street, tied at a doorway. As they untied it,

5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some people standing there asked,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at colt?"

6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They answered as Jesus had told them to, and the people let them go.

7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When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threw their cloaks over it, he sat on it.

8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겹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s.

9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10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11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 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Jesus entered Jerusalem and went into the temple courts. He looked around at everything, but since it was already late, he went out to Bethany with the Twelve.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삼상 8:1-22

- 1 사무엘이 늙으매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
니

When Samuel grew old, he appointed his sons as Israel's leaders.

- 2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The name of his firstborn was Joel and the name of his second was Abijah, and they served at Beersheba.

- 3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But his sons did not follow his ways. They turned aside after dishonest gain and accepted bribes and perverted justice.

-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
아가서

So all the elders of Israel gathered together and came to Samuel at Ramah.

-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
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They said to him, "You are old, and your sons do not follow your ways; now appoint a king to lead us, such as all the other nations have."

-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
매

But when they said, "Give us a king to lead us," this displeased Samuel; so he prayed to the LORD.

-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And the LORD told him: "Listen to all that the people are saying to you; it is not you they have rejected, but they have rejected me as their king.

-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
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을 섬김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As they have done from the day I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until this day, forsaking me and serving other gods, so they are doing to you.

- 9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Now listen to them; but warn them solemnly and let them know what the king who will reign over them will claim as his rights."

- 10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Samuel told all the words of the LORD to the people who were asking him for a king.

- 11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
이며

He said, "This is what the king who will reign over you will claim as his rights: He will take your sons and make them serve with his chariots and horses, and they will run in front of his chariots.

12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Some he will assign to be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fifties, and others to plow his ground and reap his harvest, and still others to make weapons of war and equipment for his chariots.

13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He will take your daughters to be perfumers and cooks and bakers.

14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He will take the best of your fields and vineyards and olive groves and give them to his attendants.

15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십일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grain and of your vintage and give it to his officials and attendants.

16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Your male and female servants and the best of your cattle and donkeys he will take for his own use.

17 너희의 양 떼의 십분의 일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flocks, and you yourselves will become his slaves.

18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When that day comes, you will cry out for relief from the king you have chosen, but the LORD will not answer you in that day."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 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But the people refused to listen to Samuel. "No!" they said. "We want a king over us.

20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Then we will be like all the other nations, with a king to lead us and to go out before us and fight our battles."

21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When Samuel heard all that the people said, he repeated it before the LORD.

22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The LORD answered, "Listen to them and give them a king." Then Samuel said to the Israelites, "Everyone go back to your own town."

SAEROUN QT

22

월요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신 17:14-20

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When you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and you say, "Let us set a king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

15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be sure to appoint over you a king the LORD your God chooses. He must be from among your fellow Israelites. Do not place a foreigner over you, one who is not an Israelite.

16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The king, moreover,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for himself or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to get more of them, for the LORD has told you, "You are not to go back that way again."

17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He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astray.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silver and gold.

18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When he takes the throne of his kingdom, he is to write for himself on a scroll a copy of this law, taken from that of the Levitical priests.

19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It is to be with him, and he is to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so that he may learn to revere the LORD his God and follow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se decrees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and not consider himself better than his fellow Israelites and turn from the law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en he and his descendants will reign a long time over his kingdom in Israel.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권위 논쟁

막 11:27-33

27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아와

They arrived again in Jerusalem, and while Jesus was walking in the temple courts,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came to him.

28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asked. “And who gave you authority to do this?”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Jesus replied, “I will ask you one question. Answer me, and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30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John’s baptism—was it from heaven, or of human origin? Tell me!”

31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They discussed it among themselves and said,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ask, ‘Then why didn’t you believe him?’

32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But if we say, ‘Of human origin’ ...” (They feared the people, for everyone held that John really was a prophet.)

33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So they answered Jesus, “We don’t know.” Jesus said, “Neither will I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am doing these things.”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하나님께 바치라

막 12:13-17

13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Later they sent some of the Pharisees and Herodians to Jesus to catch him in his words.

14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꺾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They came to him and said, "Teacher, we know that you are a man of integrity. You aren't swayed by others, because you pay no attention to who they are; but you teach the way of God in accordance with the truth. Is it right to pay the imperial tax to Caesar or not?"

15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대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Should we pay or shouldn't we?" But Jesus knew their hypocrisy. "Why are you trying to trap me?" he asked. "Bring me a denarius and let me look at it."

16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They brought the coin, and he asked them, "Whose image is this? And whose inscription?" "Caesar's," they replied.

17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Then Jesus said to them, "Give back to Caesar what is Caesar's and to God what is God's." And they were amazed at him.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산 자의 하나님

막 12:18-27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Then the Sadducees, who say there is no resurrection, came to him with a question.

19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Teacher,” they said, “Moses wrote for us that if a man’s brother dies and leaves a wife but no children, the man must marry the widow and raise up offspring for his brother.

20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Now there were seven brothers. The first one married and died without leaving any children.

21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The second one married the widow, but he also died, leaving no child. It was the same with the third.

22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In fact, none of the seven left any children. Last of all, the woman died too.

23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Jesus replied, “Are you not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25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When the dead rise, they will neither marry nor be given in marriage; they will be like the angels in heaven.

26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Now about the dead rising—have you not read in the Book of Moses, in the account of the burning bush, how God said to him,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He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You are badly mistaken!”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

.....

.....

.....

.....

.....

.....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

.....

.....

.....

.....

.....

.....

.....

.....

사무엘의 유언

삼상 12:1-25

1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Samuel said to all Israel, "I have listened to everything you said to me and have set a king over you.

2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Now you have a king as your leader. As for me, I am old and gray, and my sons are here with you. I have been your leader from my youth until this day.

3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Here I stand. Testify against m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his anointed. Whose ox have I taken? Whose donkey have I taken? Whom have I cheated? Whom have I oppressed? From whose hand have I accepted a bribe to make me shut my eyes? If I have done any of these things, I will make it right."

4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You have not cheated or oppressed us," they replied. "You have not taken anything from anyone's hand."

5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Samuel said to them, "The LORD is witness against you, and also his anointed is witness this day, that you have not found anything in my hand." "He is witness," they said.

6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Then Samuel said to the people, "It is the LORD who appointed Moses and Aaron and brought your ancestors up out of Egypt.

7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Now then, stand here, because I am going to confront you with evidence before the LORD as to all the righteous acts performed by the LORD for you and your ancestors.

8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곳에 살게 하셨으나

"After Jacob entered Egypt, they cried to the LORD for help, and the LORD sent Moses and Aaron, who brought your ancestors out of Egypt and settled them in this place.

9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But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so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Sisera, the commander of the army of Hazor, and into the hands of the Philistines and the king of Moab, who fought against them.

10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They cried out to the LORD and said, 'We have sinned; we have forsaken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oreths. But now deliver us from the hands of our enemies, and we will serve you.'

11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Then the LORD sent Jerub-Baal, Barak, Jephthah and Samuel, and he delivered you from the hands of your enemies all around you, so that you lived in safety.

12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But when you saw that Nahash king of the Ammonites was moving against you, you said to me, 'No, we want a king to rule over us'—even though the LORD your God was your king.

13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Now here is the king you have chosen, the one you asked for; see, the LORD has set a king over you.

14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마는

If you fear the LORD and serve and obey him and do not rebel against his commands, and if both you and the king who reigns over you follow the LORD your God—good!

15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But if you do not obey the LORD, and if you rebel against his commands, his hand will be against you, as it was against your ancestors.

16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Now then, stand still and see this great thing the LORD is about to do before your eyes!

17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Is it not wheat harvest now? I will call on the LORD to send thunder and rain. And you will realize what an evil thing you did in the eyes of the LORD when you asked for a king."

18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Then Samuel called on the LORD, and that same day the LORD sent thunder and rain. So all the people stood in awe of the LORD and of Samuel.

19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The people all said to Samuel, "Pray to the LORD your God for your servants so that we will not die, for we have added to all our other sins the evil of asking for a king."

20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Do not be afraid," Samuel replied. "You have done all this evil; yet do not turn away from the LORD, but ser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21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Do not turn away after useless idols. They can do you no good, nor can they rescue you, because they are useless.

22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For the sake of his great name the LORD will not reject his people, because the LORD was pleased to make you his own.

23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As for me, far be it from me that I should sin against the LORD by failing to pray for you. And I will teach you the way that is good and right.

24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But be sure to fear the LORD and serve him faithfully with all your heart; consider what great things he has done for you.

25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Yet if you persist in doing evil, both you and your king will perish."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막 12:28-37

28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One of the teachers of the law came and heard them debating. Noticing that Jesus had given them a good answer, he asked him, "Of all the commandmen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2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The most important one," answered Jesus, "is this: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

3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Well said, teacher," the man replied. "You are right in saying that God is one and there is no other but him.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To love him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t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s more important than all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34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으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When Jesus saw that he had answered wisely, he said to him,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And from then on no one dared ask him any more questions.

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While Jesus was teaching in the temple courts, he asked, "Why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the Messiah is the son of David?"

36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David himself, speaking by the Holy Spirit, declare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put your enemies under your feet.'"

37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David himself calls him 'Lord.' How then can he be his son?" The large crowd listened to him with delight.

...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

...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

2026.
06

순예배 가이드

01

1. 6월 첫째 주 (5/31-6/6)

언약궤가 돌아오다 (삼상 6:1-21 & 7:1-2)



01

[순예배 가이드] 6월 첫째 주 (5/31-6/6)

언약궤가 돌아오다

삼상 6:1-21 & 7:1-2

지난주 본문 요약 |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 (삼상 5:1-12)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에 두었으나,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에 임하여 독한 종기의 재앙과 다곤 신상이 엎드러졌으며,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관찰/해석	[삼상 6:1-21]
	<p>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는지 일곱 달이라</p> <p>When the ark of the LORD had been in Philistine territory seven months,</p>
	<p>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p> <p>the Philistines called for the priests and the diviners and said, "What shall we do with the ark of the LORD? Tell us how we should send it back to its place."</p>

* 복술자(2절): '점쟁이'를 뜻하며, 점을 치거나, 신탁을 받아 해석하여 예언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관찰/해석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They answered, "If you return the ark of the god of Israel, do not send it back to him without a gift; by all means send a guilt offering to him. Then you will be healed, and you will know why his hand has not been lifted from you."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The Philistines asked, "What guilt offering should we send to him?" They replied, "Five gold tumors and five gold rat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Philistine rulers, because the same plague has struck both you and your rulers."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Make models of the tumors and of the rats that are destroying the country, and give glory to Israel's god. Perhaps he will lift his hand from you and your gods and your land.

* 속건제(3절):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해를 끼쳤을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관찰/해석

6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Why do you harden your hearts as the Egyptians and Pharaoh did? When Israel's god dealt harshly with them, did they not send the Israelites out so they could go on their way?

7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매어 보지 아니한 젃 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Now then, get a new cart ready, with two cows that have calved and have never been yoked. Hitch the cows to the cart, but take their calves away and pen them up.

8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Take the ark of the LORD and put it on the cart, and in a chest beside it put the gold objects you are sending back to him as a guilt offering. Send it on its way,

9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but keep watching it. If it goes up to its own territory, toward Beth Shemesh, then the LORD has brought this great disaster on us. But if it does not, then we will know that it was not his hand that struck us but that it happened to us by chance."

* **벳세메스(9절):** '태양의 집(궁전)'이라는 뜻으로, 레위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며, 지명상 태양신 숭배가 성행했던 곳으로 추측됩니다.

관찰/해석

10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젃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So they did this. They took two such cows and hitched them to the cart and penned up their calves.

11 여호와의 궤와 및 금 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They placed the ark of the LORD on the cart and along with it the chest containing the gold rats and the models of the tumors.

12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 가니라

Then the cows went straight up toward Beth Shemesh, keeping on the road and lowing all the way; they did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e rulers of the Philistines followed them as far as the border of Beth Shemesh.

13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Now the people of Beth Shemesh were harvesting their wheat in the valley, and when they looked up and saw the ark, they rejoiced at the sight.

14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파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The cart came to the field of Joshua of Beth Shemesh, and there it stopped beside a large rock. The people chopped up the wood of the cart and sacrificed the cows as a burnt offering to the LORD.

관찰/해석

15 레위인은 여호와와 그의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 날에 뱀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The Levites took down the ark of the LORD, together with the chest containing the gold objects, and placed them on the large rock. On that day the people of Beth Shemesh offered burnt offerings and made sacrifices to the LORD.

16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 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The five rulers of the Philistines saw all this and then returned that same day to Ekron.

17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These are the gold tumors the Philistines sent as a guilt offering to the LORD—one each for Ashdod, Gaza, Ashkelon, Gath and Ekron.

18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뱀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And the number of the gold rats wa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hilistine towns belonging to the five rulers—the fortified towns with their country villages. The large rock on which the Levites set the ark of the LORD is a witness to this day in the field of Joshua of Beth Shemesh.

관찰/해석

19 뱀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오만) 칠십 명을 죽이신 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But God struck down some of the inhabitants of Beth Shemesh, putting seventy of them to death because they looked into the ark of the LORD. The people mourned because of the heavy blow the LORD had dealt them.

20 뱀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And the people of Beth Shemesh asked, "Who can stand in the presence of the LORD, this holy God? To whom will the ark go up from here?"

21 전령들을 기랴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Then they sent messengers to the people of Kiriath Jearim, saying, "The Philistines have returned the ark of the LORD. Come down and take it up to your town."

[삼상 7:1-2]

1 기랴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와 그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와 그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So the men of Kiriath Jearim came and took up the ark of the LORD. They brought it to Abinadab's house on the hill and consecrated Eleazar his son to guard the ark of the LORD.

관찰/해석

2 궤가 기랏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십 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사모하니라

The ark remained at Kiriath Jearim a long time—twenty years in all. Then all the people of Israel turned back to the LORD.

적용

ME

OTHER

기도제목 우리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중보 기도제목

1.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가득하여지도록,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2.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구별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3.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삼상 6:20)

벤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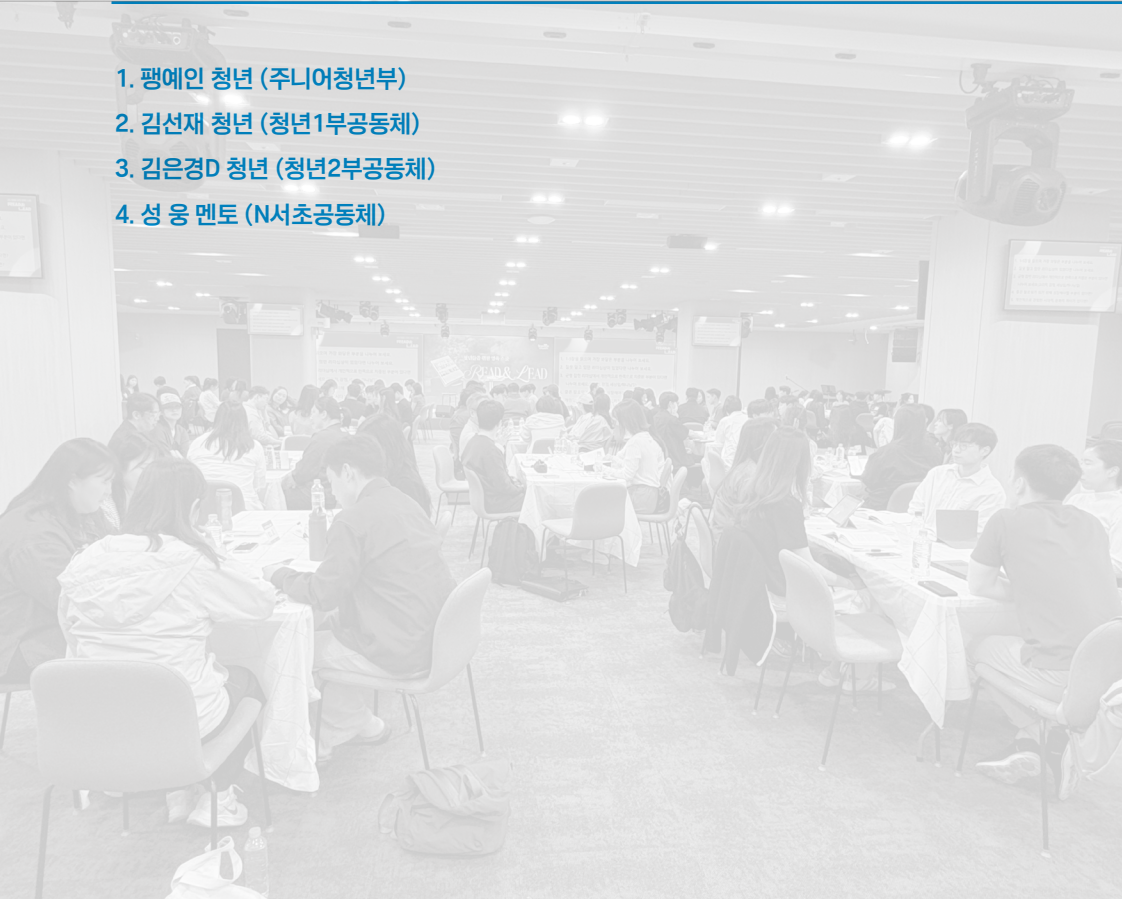
2026.
06

READ & LEAD

청년양육스쿨 'Read & Lead' 거인들의 발자국 간증

02

- 1. 팽예인 청년 (주니어청년부)
- 2. 김선재 청년 (청년1부공동체)
- 3. 김은경D 청년 (청년2부공동체)
- 4. 성 웅 멘토 (N서초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국을 따라 걷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팬예인 청년 (주니어청년부)



저는 주니어청년부 첫겨울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부터 수련회 주제 그대로 저의 영적인 심장이 'reboot' 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배에서도, 일상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다 주니어청년부 광고 시간에 한홍 목사님의 저서인 <거인들의 발자국>을 읽고 토론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계속 갈망하던 시기의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신청했습니다. 주니어청년부뿐만 아니라 청년1부와 청년2부 지체들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흔치 않은 프로그램이었기에 더욱 기대가 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첫 주에는 책의 저자인 한홍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책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조언을 해주셨는데, 모든 말씀이 은혜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인생 선배들과 친해지고 그들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경험과 조언을 들으면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인상 깊게 들었는데 2주 차부터 조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의 그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질문을 나눌 때 지체들마다 다양한 관점으로 답해주어 새로웠고 제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분이 이야기하실 때 저의 관점과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말할 때 경청하고 깊이 공감해 주셔서 부담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나누다 질문 한두 개는 못하고 마무리할 정도로 모두가 진심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며 저에게 가장 신선하게 충격을 주었던 주제는 '팔로워의 자질'이었습니다. 주제가 리더인 책에서 팔로워의 입장과 그 덕목을 다룰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리더와 팔로워는 동등한 위치이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때로는 평가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내용이 기억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는 한홍 목사님의 경험이 많이 담겨 있는 12장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타셨던 비행기에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많은 사상자 없이 마무리됐는데, 그 이유가 목사님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들을 모두 살리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게 저에겐 말로 못 할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살려 주시기 때문이요, 살려 두시는 것은 아직 내게 시키실 일,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생 선배이자 최고의 영적 멘토이신 한홍 목사님의 책을 읽고 청년부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귀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제 삶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국을 따라 걷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미 부흥의 시작입니다

김선재 청년 (청년1부공동체)



우리 주님께서서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예비 과정이 끝나자마자, 저를 곧바로 4월 청년부 Read & Lead 양육 과정으로 인도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시작할 즈음, 끊임 없이 이어지는 양육 속에서 제 삶과 가정, 제가 진장으로 섬기고 있는 바울진, 새가족 사역, 교회, 그리고 직장까지 제 말과 행동이 변화되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양육과정 18조에서 함께한 조원들은 제게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07학번 조장님과 같은 07 또래의 주니어청년부 지체와 함께했던 시간이 인상 깊었고, 동시에 이번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 세대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주니어청년부, 청년1부, 청년2부가 다소 분리된 느낌이 있었지만, 2026년부터 청년부가 하나로 연합되면서 정말 1월 첫 번째 주 비전 선포식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이번 양육 과정에 함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 책은, 한강의 기적과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나라가 풍요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오늘날 21세기판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는 현

실 속에서 '리더십의 부재'라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으며 저는 뉴젠과 성인 공동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우리 청년 세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뉴젠 세대보다 먼저 부르심 받은 세대로서, 우리가 먼저 깨어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을 꿈꾸고 살よう 분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도 함께 들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한홍 목사님께서 과거 사역하셨던 뜨거웠던 교회 청년부를 언급하시며, 교인 중 반절이 20~30대 청년이었다고 말씀하신 대목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출석률도 낮아졌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교회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양육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때 놀라운 청년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부흥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리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부끄럽지 않은 리더로 살아가기 위해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거인들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김은경D 청년 (청년2부공동체)



청년의 때를 지나며,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내야 하는 것도 많은 세상 한 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적인 소망 모두를 가득 품은 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정답이라 말하고 모든 것이 빠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기다림과 지연됨의 시간을 거룩하게 다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인격과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연됨의 은혜 속에서 자라남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리더로 부르시고 그를 준비시키시는 모든 과정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쓰시는 순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실을 갖추는 시간을 허락하시되, 처음부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성격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인들의 발자국]을 읽으면서 거인들의 강점과 장점, 성공신화만이 아닌 실패담과 약점들까지도 모두 볼 수 있어 보다 현실적으로 나의 리더십을 1:1로 제대로 검증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강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연약한 부분은 어떻게 커버해야 하는지까지 가이드해 주시니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역하고, 일할 때 어떻게 지혜롭게 관계를 다루어야 하는지

에 대해 정리가 되니 흠어졌던 경험과 지식들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들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 청년 3개 부서가 연합으로 조 나눔을 진행했는데, 정말 풍성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첫날 저자특강으로 담임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 10년을 앞서간 인생의 선배들과 교제하기를 어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0년을 앞서간 인생의 선배들은 내가 가고자 하는 미래에 먼저 가 있는 사람이니 그들과의 1시간 교제는 100권의 책을 읽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같은 조에서 저와 10-12살 차이 나는 동생들에게 “한 달간의 양육스쿨 시간 동안에 저와 청년2부를 어려워하지 말고 100권을 책을 읽는 수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저를 괴롭혀달라”라는 농담을 했는데, 많은 질문과 나눔을 통해 선배 세대에게도 신선한 도전이 새겨지는 시간이었고, 후배 세대들에게도 깊고 넓어지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말씀 안에 깊어진 우리 청년들이 세상 속에 건강한 크리스천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거인들의 발자국] 양육스쿨에 신청한 것은, 나이와 세대를 초월해서 저마다 그 안에 이미 자리 잡은 거인들이 깨어나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연약한 부분은 보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이미 그들 안에 큰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 거인으로 쓰임 받을 새로운교회 청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등반하는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산악 캠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성 웅 멘토 (N서초공동체)



‘거인들의 발자국’ 책 나눔을 청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감사하게도 멘토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인들의 발자국’은 예전에 읽은 적이 있었고, 국내외 리더십 서적들 가운데(일반 서적 포함) 개인적으로 가장 탁월한 리더십 책 중 하나라고 생각해 왔기에, 앞으로 차세대 리더가 될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설렘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장을 맡게 되었고, 조원은 저를 포함해 총 7명이었습니다. 모임은 약 2시간 정도 진행되었으며, 나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매주 몇 개의 챗터를 읽은 뒤 목사님께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셨고, 이후 조별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멘토들에게는 사회자의 입장에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줄 것을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느낀 점도 참 많았습니다. ‘거인들의 발자국’ 나눔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기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나이 때 이런 깊이의 나눔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리더십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 그 깊이가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겸손해지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이런 나눔의 시간이 만드

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은 경쟁터와 같아서 약자는 쉽게 도태되고, 멀쩡한 사람조차 무너질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왜곡된 철학으로 잘못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관례’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방식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나눔은 피난처이자, 등반하는 사람들이 잠시 숨을 고르는 산악 캠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세상이 말하는 왜곡된 리더십을 계속 들으며 살아가지만, 이번 모임을 통해 다시 예수님의 리더십을 함께 나누며 세상의 잘못된 소리를 걷어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리더십을 마음과 머리에 다시 새긴 채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점은, 우리 조 청년들 모두가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권위주의의 남용으로 인해 ‘권위’라는 가치 자체가 추락해 버린 시대 속에서도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고,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올바른 리더십관을 품고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훗날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들을 살리고, 또 이들이 붙들고 있는 리더십과 가치관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주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과 바람을 가져봅니다.

2026.
06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간증

03

- 1. 박재완 성도 (청년1부공동체)
- 2. 송재연 성도 (W서초공동체)
- 3. 김지선P 성도 (C강남공동체)

구도자 커피브레이크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박재완 성도 (청년1부공동체)



처음 커브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 기대 반, 어색함 반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성경공부 또한 처음 접하는 시간이었기에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추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용기를 내어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성경이라는 책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도 단순한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커브를 통해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이 다가오는 것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대하는 제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이해해주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며 편안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고, 그 따뜻함 속에서 저 또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에도 정성스럽게 답해주시고, 부족한 모습도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사랑의 한 부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피브레이크를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분이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모습을 보며 제 삶 또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왔던 저였지만, 이제는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제 삶의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려 하고 찬양 가사를 마음으로 따라 부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알고 싶어 졌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에도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씩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믿음에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주신 팀장님과 조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송재연 성도 (W서초공동체)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었고,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 커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도자 커브에서 만난 아브라함은 꼭 저 같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저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3년전 처음 만난 하나님은 제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저의 큰 기도 두가지를 다 들어주셨고, 미처 꺼내 놓지 못한 마음속의 작은 바람들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저를 완벽하게 고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의 첫 사랑에 꼭 빠졌습니다. 첫번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녀의 사랑 얘기도 갈등이 없으면 밋밋하고 재미가 없듯이, 저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두번째 커리큘럼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부주의한 작은 실수로 저희는 민형사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저희는 많이 억울했고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머리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던 저희의 계획은 번번히 실패했고, 당시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했던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고군분투하며 2년을 보내는 동안, 저의 믿음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매달릴 곳이 하나님 밖에 없게 되었을 때,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울며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기각되었고, 저희는 한 폰도 배상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승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도록 저를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 중에도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일로 남편과 싸우지 않고 연합하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게 하심에 감사, 순원님들과 양육 과정을 통해 만난 분들의 중보 기도에도 감사, 믿음이 작았던 남편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 어린아이 같던 저의 믿음이 자람에 감사할 일 뿐입니다. 아직 저희에게는 형사소송 판결이 남아 있지만 더 이상 판결의 결과를 예상하며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이제 판결은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세번째 커리큘럼의 고난을 주시면 저는 이만큼 자란 귀한 믿음 다시 낮아지고 싶지 않고, 고난 끝에 주실 은혜와 축복을 이제 알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지체하면 잡아 끌어 내서라도 저를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실 것을 이제 진심으로 믿습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도록 저를 붙드시는 주님 안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모태에서 지어지기도 전부터 저를 아시고, 지명하여 내 것이라 불러주신 주님. 처음 만난 날 보다 오늘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보다 더 사랑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김지선P 성도 (C강남공동체)



저는 새로운 교회에 출석한 지 3개월 정도 된 신자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20대에 바쁘다는 핑계로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30대에 제 마음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고 난 후 차갑게 식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그냥 놓지 않으시고 1년 간 미국 연수를 허락하셨고, 거기에서 저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중보에 힘입어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하면서 친정어머니의 권유로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바로 새가족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새가족 교육 담당 목사님께서 새가족은 구도자 커피브레이크를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매주 교회를 가는 것이 귀찮게 느껴져 외면하고 있었던 어느 주일 밤, 갑자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커피브레이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하는 것과 나누는 것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조 리더님들과 자매님들의 나눔을 들으며 감사하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커피브레이크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을 믿었고, 이 시간이 지나면 나눌 수 있는 마음

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한 주 한 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의 중반부 정도가 되었을 때, 준비 찬양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찬양을 드리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며, 저를 친히 손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이 너무 친근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아주 작은 의에도 그를 의인이라 칭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조금씩 틀릴지도 모르지만 저의 생각을 자매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부족하지만 저의 삶도 조금씩 나누며 말씀을 적용하는 연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목요일 오전을 기다렸고, 한 조에서 만난 자매님과 같은 순에 배정되면서 마더와이즈 성경공부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그 시간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 지 기대하는 시간이 되어 감사했습니다. 매주 저희를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주시는 두 분의 리더님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저의 부족한 나눔에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구도자 커피4조 자매님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Saeroun Summer Missionary Work

여름선교일정



몽골 Mongolia
6.21주일-26금



베트남 Vietnam
7.13월-17금



인도네시아 Indonesia
7.27월-8.1토



제주 Jeju
청년연합 6.24수-27토
선교팀 8.12수-15토



캄보디아 Cambodia
8.24월-28금

은혜롭고 안전한
선교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Wednesday Prayer Worship

6월 수요일기도예배 제자도

6/3 2026 지방선거 <small>국가공휴일인 관계로 예배가 없습니다.</small>	6/10 이경애 목사
6/17 김도형 목사	6/24 김소리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장소 새로운홀(가든파라드 패션관 10층)
문의 조은영 목사 choeunyoung@saeroun.net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무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삼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EB** www.saeroun.net
